"대통령도 되는 파면 국회의원만 예외"

복기왕 靑 비서관,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 답변
"20대 국회서 법 완성돼야"… '일하는 국회' 압박

여야가 좀처럼 국회 정상화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를 상대로 '파행' 책임론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가 정쟁에만 매몰된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청와대가 여야의 정쟁에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11일과 12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해산 청구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각각 답을 내놓으면서 이틀 연속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한 청원에 대해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을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 비서관은 "선출직 중 국회의원만 견제받지 않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인가"라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20대 국회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로서는 소모적 정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북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시라도 국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전날 민주당·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에 답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고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정당해산 청원이 제기된 것을 두고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정국 파행의 책임을 국회에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궤멸해야 할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유감"이라며 "(사실상) 선거운동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평소 청와대의 오만함을 다시 한 번 보는 것 같다"며 "청와대는 청원 답변에서도 '유체이탈'이 현란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정무 파트가 물 밑 해법을 도출하기 보다 야권에 비판적 모습을 보이며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청와대 정무파트"라며 "여야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청와대 정무파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노르웨이 공식 환영식 입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전(현지시간) 노르웨이 왕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하랄5세 국왕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현역 물갈이론에 '술렁~'

신정치특위 공천룰 언급
홍문종 "탈당 하겠다"
친박계 "당 내분 조장" 반발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 내부의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공천룰을 논의하는 당내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 20대 총선 공천 실패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현역 국회의원 물갈이론'을 제기하자 일부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탈당설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과 20대 총선 공천 후유증 등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물갈이 폭도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표적인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지난 주말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당의 기천명 평당원들이 여러분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기 위해 탈당 선언을 할 것"이라며 대한애국당으로의 탈당을 시사했다.

하지만 당내 친박계 의원들은 탈당까지 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공천 배제·불이익 분위기에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공천룰 제정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신정치혁신특위가 공연히 당 내분만 조장한다는 것이다.

태극기집회에 꾸준히 참석해온 김진태 의원은 이날 "태극기 세력도 끌어안아야 한다는 홍 의원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은 다를 수 있다"며 자신의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폭 물갈이설'에 영남권 지역 의원들도 동요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이 클 경우 대구·경북(TK) 등 영남 의원들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부 반발이 속출하자 신상진 위원장도 과거 발언을 뒤집으며 갈등 차단에 나섰다.

신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신정치특위는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의 원칙과 기준, 룰을 만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의당 당권 '3파전'

심상정·양경규·홍용표…이정미 대표 불출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심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자신의 역할을 깊이 고민했으며, 당 대표로서 당에 기여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의원들은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는 심 의원 외에도 양경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의당 홍용표 디지털소통위원장 등이 출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내에서는 심 의원의 독주가 예상돼 '어대심'(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이라는 말이 나왔으나, 출마자 3인의 성을 조합한 '심양홍' 경선이라는 말도 생겼다.

정의당은 이날 동시당직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19~20일 후보등록, 7월 8~13일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마감 당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필요한 건 신뢰…반드시 평화 이룰 것"

문대통령, 북미회담 1주년 오슬로대학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가 교착상태이지만 그것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지난 70년 적대해왔던 마음을 녹여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슬로대학 법대 대강당에서 열린 오슬로포럼에 참석,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마침 오늘은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오슬로 구상'으로 불리는 이번 연설은 작년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꼭 1년이 되는 날 나왔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작지 않다. 특히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대화 교착 상황에 숨통을 트이게 할 모멘텀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맞잡았고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원칙에 합의했고 그 합의는 진행 중"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대한 의지와 지도력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대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총선 공천룰 내달 1일 확정

중앙위원회 소집…최종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룰을 최종 의결하기 위해 다음 달 1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 자료를 통해 "중앙위원회 의장단 선출, 당헌 개정, 특별당규 제정 투표, 중앙당 결산 및 예산안 의결을 위해 제1차 중앙위원회를 7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에서 공천룰 확정을 위한 특별당규 제정 투표를 하기 전에 온라인 당원 플랫폼을 통해 권리당원 대상으로 전당원 찬반 투표를 한다.

이달 말 예상되는 온라인 투표와 중앙위원회 찬반 투표를 합산해 찬성표가 절반이 넘으면 특별당규, 즉 공천 룰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별당규 제정 투표를 위한 권리당원 선거인단 명부 작성과 추천 등을 위해 권리당원 권리행사 시행일을 6월 1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최고위와 당무위를 잇달아 열고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장애인 등에 대한 가점을 높이는 총선 공천룰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이수혁(외교·안보)·최운열(경제) 의원을 당 대표 특보로 임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가라운지

민주 송갑석 의원 '우수 국회의원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서구 갑) 의원이 11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제50주년 기념식에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연맹과 청년·청소년·다문화연맹 및 162개 지부로 구성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역발전에 기여가 큰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국회의원상'을 시상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송갑석 의원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데 힘을 보탰다. 송 의원은 "여성의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정치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의식을 지닌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임 야
단독섬

▶ 바로삽니다
▶ 지분물건 환영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한마음 공인중개사

토 지
• 장흥 관산읍 용전리 자연환경보전지역 임야 120만㎡ ㎡ 당670원 매8억
• 광산구 장수동 답 자연녹지 마을접, 건축가 1,272㎡ 매4억
• 남평읍 동사리 강변도시내 상업지역 463㎡ 매매가 14억
•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목장지 임야 답 11만㎡ 우사4동, 매12억
• 무안 현경면 마산리 전 5300㎡ 매 3억8천만
• 강진 성전면 상업 준 2종일반주거지역 대지 4,240㎡ 매20억
• 영암 학산면 매월리 임야 11,800㎡ 2차선도로접 매1억1천만
• 영암 신북면 11,000㎡ 과수원 2차선 도로 접 매 4억3천

상 가
• 백운동 2층 상가주택 코너 대지99㎡ 보3천만 월40만 포함 매 1억8천
• 두암동 4층 상가건물 코너 대지210㎡ 보7500만 월190만 포함 매7억
• 산수동 4층상가주택 대지132㎡ 보2500만 월160만 포함 안집제외 매5억8천
• 임동 168세대아파트 1층 상가 대로접 330㎡ 은행4억 포함 승계가 매8억5천

무인텔·사찰·기타용도
• 해남읍 종교지, 전, 임야 1만㎡ 사찰건물최고 납골당 4 개인사찰임 매11억
• 화순 도곡 무인텔 대지2,900㎡ 건물3동 월매출6천만원 객실37실 매35억
• 담양 월산면 중월리 대지4,200㎡ 모텔4층, 2층식당 펜션, 기타용도 매12억

전원주택
• 봉황 와우리 농가주택 대지 575㎡ 주택106㎡ 올리모델링 매 1억4천만

아파트·빌라
• 계림동빌라 5층중4층 엘리베이터 방2 거실큼 전세8천만원포함 매1억3천만
• 월산동 우방아이유셀 115㎡, 9층, 매3억8천만

상담전화 ☎010-2314-8567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이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010-4061-7200